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은 더 실질적이어야 한다
- 이슈분석** 국내 오픈뱅킹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 금융경영브리프** 골드만삭스, 플랫폼에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추가
코로나 시대, 고성장이 예상되는 딥 러닝 시장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저점 하향 돌파를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
외 환: 펀더멘털을 넘어선 일시적 완화 강세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
수석연구원 이재완(jwan.lee)
수석연구원 김동한(vipdhk)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은 더 실질적이어야 한다
- 04 **이슈분석** 국내 오픈뱅킹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 08 **금융경영브리프** 골드만삭스, 플랫폼에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추가
코로나 시대, 고성장이 예상되는 덩 러닝 시장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저점 하향 돌파를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
외 환: 펀더멘털을 넘어선 일시적 원화 강세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은 더 실질적이어야 한다*

이 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changmin74@hanyang.ac.kr)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 관련 논의에는 합리적, 실증적 토론보다는 가짜 뉴스가 판친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강화되어야 한다.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개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한 법안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모호하고 재계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는 항상 어렵다. 이게 단순히 필요한 규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언론 지상에 가짜뉴스도 많고 왜곡과 과장도 많다. 더 문제는 여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결합하여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러나 근거가 빈약한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이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민족주의에 거리낌 없이 호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본 기고에서는 수사는 모두 제거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논점만을 짚으려고 한다. 지면의 제약상 개별 법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이 생략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의 내용은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애초의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은 전면개정을 염두에 둔 원대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시행효과가 미비하다. 우선 지주회

개정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 지분율 요건 50% 통일, 의결권 예외 허용조항 삭제, 사익편취 입증부담 경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사 규제의 경우 의무지분을 기준을 10%p 상향하였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부터 적용하였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기존 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종화(2020)^[2]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확대되기는 하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규제회피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조항의 핵심 문제인 ‘부당성 요건’이 삭제되지 않았다. 입증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이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실질적 영향을 받는 계열사가 3개에 불과하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어떤가? 영향을 받는 80개 계열사 중 48개는 의결권 감소효과가 1% 미만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50%로 통일하고, 기존 지주회사도 유예기간 내 해소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의결권 제한은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예외 허용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사익편취 규제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23조 2항의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서 ‘부당한’을 삭제하여 입증부담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규제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제대상 계열사를 더 넓혀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의 지분율 요건 하향 조정, 소제기 요건 단독주주권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

상법을 보자.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아직까지 헛발질이다. 첫 번째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을 따를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오직 65%만이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는 지분 1%이상을 보유하거나 6개월 이상 0.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소제기가 가능한데 소송의 성격상 너무 엄격하다. 두 번째,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을 채택하였으나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이 아니라 1명 이상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위원 1명만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무엇을 할 수 있나? 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시 전자투표를 실시하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은 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입김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지분율 50%를 초과한 모자회사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지분율 요건을 낮추는 것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3] 그리고 소제기 요건도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이


[2] 노종화(202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효과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0-24.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아예 없는데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는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핵심문제이다. 지배주주 전횡의 효율적 견제장치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사선임의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이라도 집중투표 방식으로 결의해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금산복합그룹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의 위험으로 전이되고 이는 경제 일반으로 전파될 수 있다. 안정적 시장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은 몇가지 우려를 낳는다. 우선, 금융그룹의 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체계를 위험 감경요소로 집어넣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계열사간 출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전이 위험이 있는데도 내부통제만 그럴 듯하면 필요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위험평가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내부통제 체계를 위험평가 시 고려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별개의 또 다른 항목이 되어야 한다. 즉, 감경요인이 아니라 가중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적정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 별표로 넣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의해야 한다.

∴ 제발 이성적으로 접근하자

공정경제 3법 논의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경제민주화로 인해 한국이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놀이터가 될 거 같이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강정민(2019)⁴⁾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공개매수의 위험은 사실상 전무하다. 만약 공정경제 3법이 도입되더라도 지배권(경영권) 방어 장치는 충분하다. 또, 언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적대적 인수합병도 그 자체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전무한 한국사회에서 그 폐해 때문에 공정경제 3법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내부통제체제 위험평가 시 가중요인으로 처리,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의하는 등의 조치가 바람직

공정경제 3법이 가짜 뉴스를 넘어서 본래 취지에 맞게 강화되어야 할 상황

[3] 자세한 내용은 “이승희 (2017.4.6.) 다중대표소송 적용 기준에 따른 실효성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7-4호” 참조

[4] 강정민(2019), 적대적 공개매수 위험 과연 어느 정도인가? 2010-2018년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이슈&분석 2019-01.

국내 오픈뱅킹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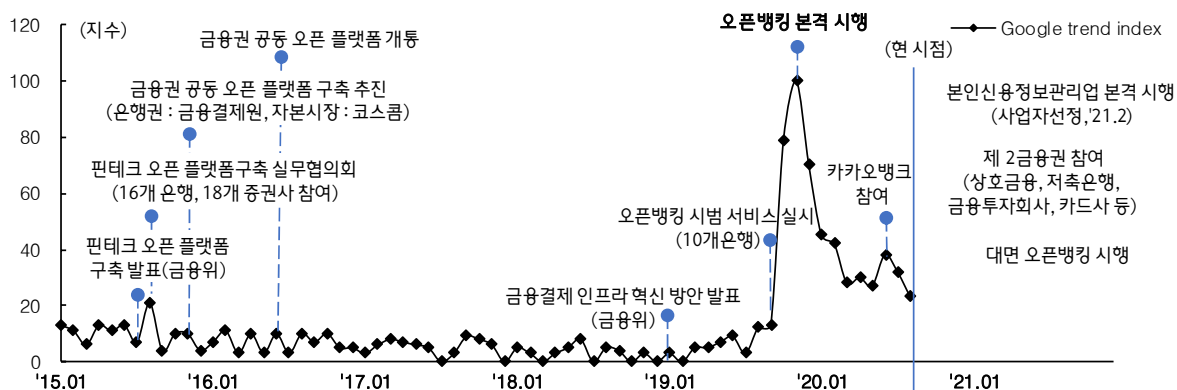
이 기 흥 수석연구원(kihong.lee@hanafn.com)

국내 오픈뱅킹은 지난해 출범 이후 등록계좌가 빠르게 증가하며 성장하였다. API 사용량 역시 1억 건이 넘었으며, 제2금융권 참여 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는 은행보다 가입자가 많았으나, API 이용 건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권 내에서는 상위 2개 은행이 오픈뱅킹을 선점 중이나, 편차가 더 커질 경우 은행 간 고객 확보 경쟁이 예상된다. 향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본격 시행되면 시장참여자들 간에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경쟁이 예상된다.

■ 은행과 핀테크를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시행 중이며, 향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예정

- 금융권 공동 오픈 API('16.8) 개통을 시작으로, '19년 12월부터 오픈뱅킹을 본격 시행 중이며, 향후 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참여할 예정
 - 오픈뱅킹 본격 시행 이후 시장참여자가 47개에서 72개(20.6)로 증가하였으며,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대형 28곳, 중소형 26곳, 은행 18개 참여
- 제2금융권 참여는 은행권에서 국내 계좌기반 조회·이체 서비스로 대폭 확대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전자금융공동망 이용 가능 예금 중 은행권은 77%, 제2금융권은 23%를 차지
- 특히, 내년 2월에 선정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본격 시행되면 오픈뱅킹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
 -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 중에서 5월 14일 이전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40개 업체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심사

■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추진 현황과 소비자 관심 지수



주 : 구글 트렌드에서 "오픈뱅킹" 검색어에 대한 지수(2015년 1월 ~ 2020년 8월)
 자료 : 구글 트렌드,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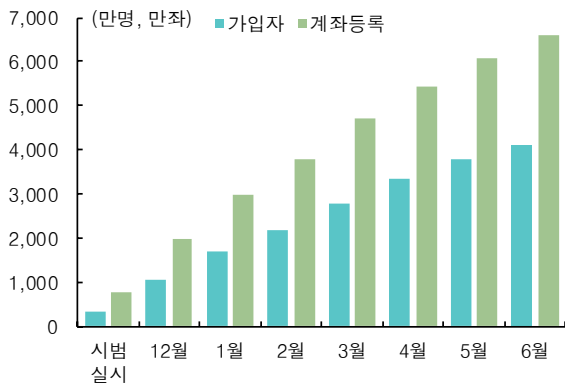
■ 지난해 12월 오픈뱅킹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이후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

- 지난해 7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72%가 오픈뱅킹을 이용 중
 - 오픈뱅킹 시행 이후 '20.6월까지 가입자는 2,032만명(중복 포함시 4,096만명)이며, 계좌 등록은 4,398만좌(중복 포함시 6,588만좌)를 기록
- 오픈뱅킹 시행 이후 핀테크가 은행권보다 오픈뱅킹 가입자 선점에 우위
 - '20년 6월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 중 79%가 핀테크를 통해 가입, 등록 계좌 수도 핀테크가 64%로 은행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
- 이는 금융위가 API 이용 수수료 인하를 통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 오픈뱅킹 시행이후 모든 API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특히 핀테크가 많이 사용하는 출금이체 수수료를 기존 대비 90% 수준으로 인하

■ 오픈뱅킹 API 이용 행태의 경우 은행은 잔액조회, 핀테크는 출금이체 중심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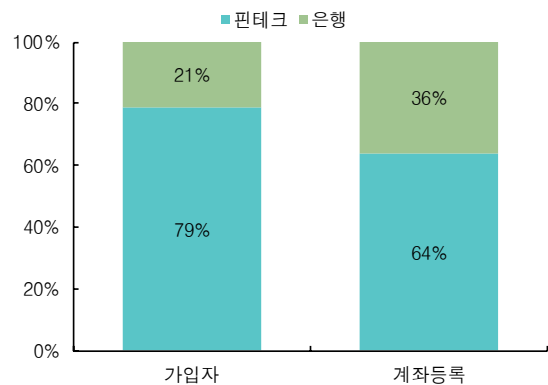
- 핀테크는 ‘조회관련’ 서비스를 수수료가 없는 스크래핑¹¹⁾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회관련 비중은 낮고 출금이체(82.5%)는 높음
- 향후 핀테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참여하면 API 방식만 허용되는 반면, 미참여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그대로 허용
 -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에서 사용·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예, 스크래핑)
- 핀테크는 가입자 수에 비해 은행보다 API 사용량이 적으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참여자는 은행의 API 이용량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평균 API이용 건수('20.6 누적 기준) : 은행(약 81건), 핀테크(약 11건)

■ 오픈뱅킹 가입자 및 계좌등록(누적)



자료 : 금융결제원

■ 오픈뱅킹 이용 비중



주 : 2020년 6월 누적 기준
자료 : 금융결제원

[11] 고객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특정 금융사나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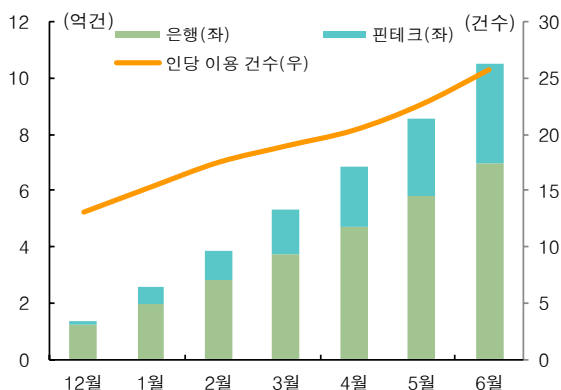
■ **오픈뱅킹 은행 사용자 대상 설문 결과 오픈뱅킹 서비스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핀테크와 차별화된 서비스의 부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

- 한국금융연구원('20.7월)의 설문 결과 약 70% 이상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 하였으며,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2.1%에 불과
- 타행 이체 시 송금 수수료가 무료인 점은 장점이나 타행 통합조회·이체 외 별다른 서비스가 없고 간편송금 앱보다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불만 사항을 제기
- 오픈뱅킹 사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대한 불안'과 '은행별 인증 방식의 차이 및 여러 개 앱 설치 등 혼란스러움'을 제기

■ **현재까지 은행 간 자금 이동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위 2개 은행이 은행권 오픈뱅킹을 선점하였고 향후 자금 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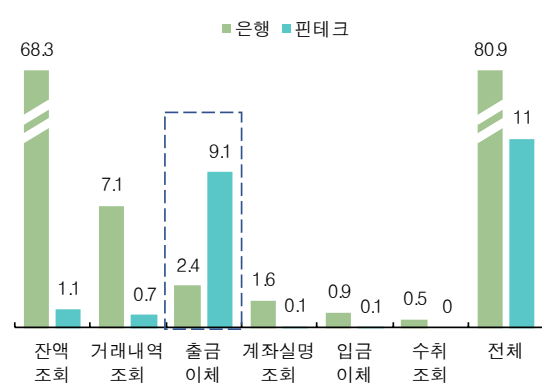
-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중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순유입은 시중은행이 우위
 - '20년 4월 기준 시중은행으로 1조원 이상 순유입하였으며, 특수은행은 0.7조원, 지방은행은 0.2조원의 순유출을 기록
- 상위 2개 은행이 오픈뱅킹 가입자와 등록계좌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순유입 금액 또한 1.7조원을 기록, 향후 순유입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전체 은행의 가계 요구불예금 98조원(한국은행, '20.4) 중 1.7% 차지
- 전체 은행의 가계 요구불예금이 오픈뱅킹 시행 당시보다 13조원이 증가, 은행 간 오픈뱅킹 순유출로 인한 체감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향후 정체되거나 감소하면 상위 2개 은행으로 순유출 되는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전체 은행의 가계 요구불예금 : 85조원('19.12) → 98조원('20.4)

■ API 누적 이용 건수



자료 : 금융결제원

■ API 이용 행태




주 : 2020년 6월 누적 기준(1인당 평균 API 이용 건수)
자료 : 금융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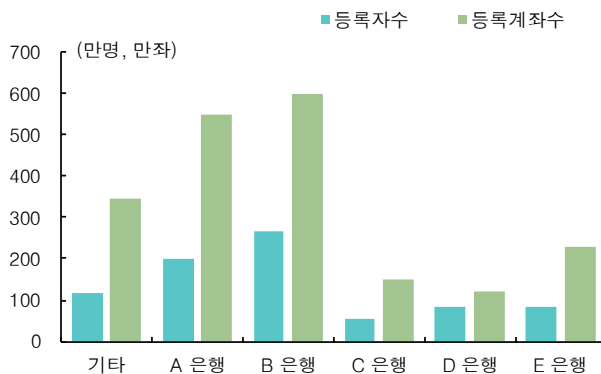
■ 오픈뱅킹의 제2금융권으로 확대와 데이터3법 시행으로 혁신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

-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공동결제망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지급지시전달업이 연계될 경우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 신설 예정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가 확대되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
-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참여자는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고객 점유율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마이데이터 도입 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혁신 서비스의 경쟁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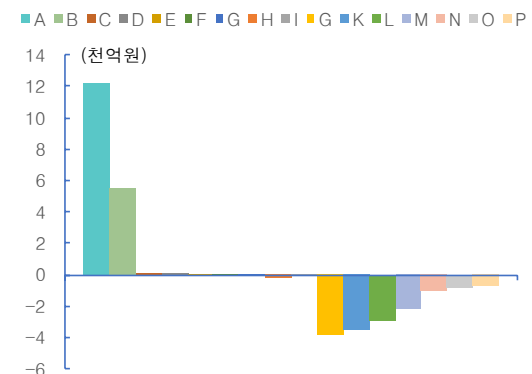
-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도 오픈뱅킹으로 특정 은행의 순유입 규모가 커질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의 경쟁보다 단순 고객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이 우려
- 급증한 오픈뱅킹 가입자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새로운 혁신 서비스 출시 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
 - ‘오픈뱅킹’ 검색어 지수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를 일반화하면, 금융위 발표·서비스 시행 등 오픈뱅킹에 관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음
- 또한,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와 참여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공유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은행 내 오픈뱅킹 등록자 및 등록계좌 수



주 : 2020년 4월 누적 기준
자료 : 금융연구원

■ 은행별 누적 순유입/출 금액



주 : 2020년 4월 누적 기준
자료 : 금융연구원

골드만삭스, 플랫폼에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추가

이재완 수석연구원(jwan.lee@hanafn.com)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뱅크 비전 달성 및 핀테크 업체 대응을 위해 리테일 고객 대상 디지털 플랫폼인 Marcus 앱에 개인자산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계좌통합관리, 예산관리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향후 당좌예금계좌, 투자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타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모바일 기반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골드만삭스는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인 Marcus 앱에 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tool을 추가하여 런칭^[1]

- 골드만삭스는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인 Marcus 앱을 2016년에 런칭한 이후 지속적인 투자 및 M&A를 통해 기능서비스 확대
 - 2016년 GE Capital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PFM 스타트업인 Clarity Money 인수
- 대중들의 금융생활에 접근하고 리테일 고객들과 자산관리 관련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PFM tool을 제공
 - PFM은 통합계좌조회, 지출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국내외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
- 이러한 움직임은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뱅크 비전을 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브로커리지, 대형 금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함

■ 기본적인 개인 자산관리 기능 제공을 시작으로 투자서비스 등을 추가할 계획


- 'Marcus Insight'로 불리는 PFM tool을 통해 고객들에게 금융기관 계좌를 통합하여 보여주고 지출 및 월별 예산관리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
- 초기에는 계좌통합관리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21년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 및 투자서비스를 추가하며 기능을 확대할 계획
- Marcus Insight 출시 초기에는 골드만삭스 계좌를 보유한 고객만 이용 가능하나 향후 Marcus 앱을 다운로드하는 모든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1] "Goldman Sachs is taking what it learned from a \$100 million acquisition to upgrade the Marcus app", CNBC, 202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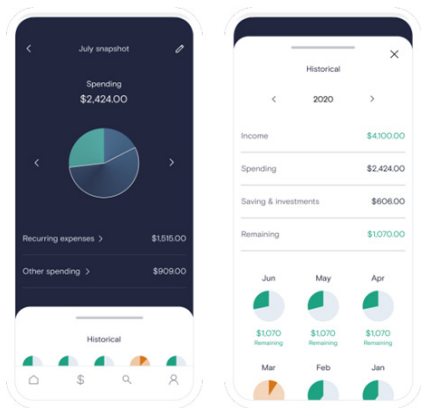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모바일 기반 개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 핀테크 기업들이 PFM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자체 개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핀테크 회사를 활용
- Bank of America는 2006년 대형 금융기관 최초로 자체 온라인 PFM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오픈하며 기능을 지속 확대
 - 지출 및 예산관리, 개인화된 모바일 대쉬보드, 목표설정 Tool, AI기반 가상비서 Erica와 연계, In-app trading 등의 기능 제공
- Wells Fargo는 2017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SigFig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Intuitive Investor를 출시하였으며, AI기반의 PFM 서비스 자체 개발
 - 투자자문, 실제 지출을 기반으로 한 예산관리, 저축계획, 은퇴계획 등의 기능 제공

■ 국내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점검 필요

- 최근 국내에서도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들도 자산관리 앱을 출시하며 경쟁이 본격화
 - 은행권에서 출시하는 서비스의 경우 자산분석, 예산관리 및 금융상품 추천 위주
 - 증권사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관리, 매매 등에 집중
- 향후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들도 모바일을 통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전략을 점검하고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 각 금융기관 유형별 고객의 성향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사와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할 필요 

■ Marcus Insight 화면



자료 : Marcus (2020)

■ Marcus Insight의 특징

구분	내용
계좌확인	- 예금, 저축, 대출, 은퇴자금, 투자계좌 확인 가능 - 핀테크 회사인 Plaid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연계 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지출분석	- 카테고리 및 구매빈도에 따라 지출내용 분석/확인 - 간편한 UI/UX로 카테고리 재설정 가능
예산분석	- 월별 지출, 투자, 저축, 잔여 예산 등 확인 - 월별 현금흐름, 반복되는 비용 분석

자료 : Marcus (2020)

코로나 시대, 고성장이 예상되는 딥 러닝 시장

김 동 한 수석연구원(vipdhk@hanafn.com)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이 비대면, 비접촉, 무인화 방식으로 변모되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성능이 크게 개선된 딥 러닝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언택트 소비패턴 확산이 이러한 딥 러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딥 러닝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진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사들도 영업기회를 찾아볼 만하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 생활이 비대면, 비접촉, 무인화 방식으로 변모 중이며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¹⁾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 중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택 및 원격 근무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방역 및 확진자 진단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본격화
- 향후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방역 및 확진자 진단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

■ 특히, 기술적 문제(비선형 분리, 기울기 소실, 오버피팅 등)²⁾의 완화, 하드웨어(GPU)의 발전, 빅데이터 출현으로 성능이 크게 개선된 딥 러닝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 중

- 딥 러닝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느린 학습 시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
- 또한 과거에는 딥 러닝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딥 러닝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었음
- 이처럼 충분한 학습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딥 러닝을 이용한 학습을 할 경우 오히려 언더피팅(예측 성능 저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음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의 진화가 기대되는 이유",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5.13

[2] ① 비선형 분리 : 초기 인공신경망 모형은 출력값이 1 또는 0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선형적일 경우만 사용이 적합
 ② 기울기 소실 : 비선형 분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층 퍼셉트론 모델이 제시됐지만, 은닉층을 추가할수록 학습과정에서 데이터가 사라져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
 ③ 오버피팅 :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감소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

- 그러나 SNS 서비스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나타남으로 인해 학습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져서 딥 러닝을 활용해 복잡한 개념이나 문장을 학습하는 것이 용이해짐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 딥 러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위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집콕 문화와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
- 이에 딥 러닝을 적용한 비대면·비접촉·무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공지능 시장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19년 164억 달러에서 '25년 988억 달러로 약 6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³⁾
-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특히, 딥 러닝 분야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서 딥 러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높아질 전망
 - 딥 러닝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9년 70%에서 '25년 72% 예상 ⁴⁾

■ 딥 러닝을 활용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고, 수많은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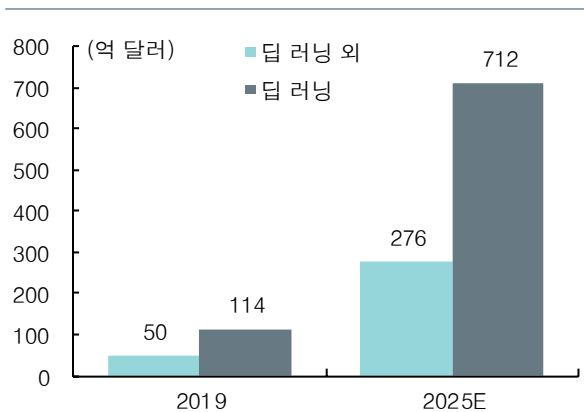
- 역사적으로 신기술의 확산과 사회 변화의 과정은 관성에 의한 대중의 반발과 저항 때문에 경제 전반의 주류 현상이 되지는 못했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중화와 산업화에 다소 뒤처졌던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국내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국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⁵⁾

■ 언택트 서비스(딥 러닝 활용)와 주요 기업 현황

언택트 서비스	주요 기업
원격의료	알리바바(알리헬스), 구글(헬프아웃), 아마존(헬스 내비게이터), 소프트뱅크.라인, 아메리칸웰, 닥터온디맨드
온라인 쇼핑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SSC닷컴, 지마켓, 11번가, 텐센트(메이르유센), 알리바바(허마), 쿠팡, 이마트
온라인 게임	구글(스타디아), 텐센트, 카카오,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트리밍	유튜브, 넷플릭스, 바이트댄스(틱톡), 네이버(브이라이브)
소셜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텐센트(위챗), 카카오, 네이버(라인)
스마트 팩토리	시스코, 지멘스, GE, 화웨이, 포스코CT, 삼성SDS, LG CNS
테크핀	알리바바,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토스
프롭 테크	위워크, 프룸, 오픈도어, 직방, 다방, 프로코어, 룸빅스

자료 : 전승화·김정호(2020), 신산업경영저널 제38권 1호

■ 글로벌 인공지능(딥 러닝 등) 시장규모 전망



자료 : TRACTICA (2020.7월)

³⁾ "Global AI software market set to rise sixfold to reach nearly \$100 billion in 2025", TRACTICA, 2020.7.10.

⁴⁾ "Deep Learning Chipsets", TRACTICA, 2020.7.1

금리: 저점 하향 돌파를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유로지역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일부 경제 봉쇄 조치가 동반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했다. 다만 대외금리의 경우 그동안 위험자산 랠리 과정에서 상승 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되었다. 국내는 뉴질랜드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 등으로 금리가 동반 하락했으며 특히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금리 하락을 주도했다. 채권 강제 환경 하 금리는 낮아진 범위에서 등락하겠으나 추가 인하에 대한 확신 없이는 8월에 기록한 저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을 이어가면서 주요국 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등락

- FOMC는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기초적인 2% 상회 달성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을 의결문에 담았으며 위원들은 2023년까지도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
 - 다만 추가적인 자산 매입과 보유 채권 구성(평균 만기 장기화 등)과 관련한 언급이 부재했고 재정 부양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위험자산 약세 요인으로 작용
- 영란은행은 유럽과의 무역합의가 연말 시한 내 타결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단 확보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 여부를 타진 중에 있다고 발표
- 유로지역 코로나 재확산과 경제 봉쇄 조치, 美 경기 부양책 공백 우려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후퇴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금리는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
 - 주요국 국채 10년(%): 9.11일→9.24일): 美 0.67→0.67, 獨 -0.48→-0.50, 英 0.18→0.22


■ 국내 금리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 조치와 외국인 대규모 국채 선물 순매수로 하락

-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큰 폭의 경제 전망 하향 조정과 국내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 등으로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스탠스를 보임
- 한은은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연말까지 5조원 매입의 일환)했으며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규모(13.5조원)도 시장 우려 수준(14조원 이상)을 하회
 - 나아가 기재부는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해 국고채 교환 규모를 조정하고, 10월 중에는 국채 수요기반 강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 언급
- 국고채 금리는 수급 부담 완화와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 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했고, 크레딧 시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여전채 중심의 스프레드 축소
 - 국고 3/10년 금리(%): 8.26일 0.84/1.40 → 9.7일 0.97/1.57 → 9.24일 0.87/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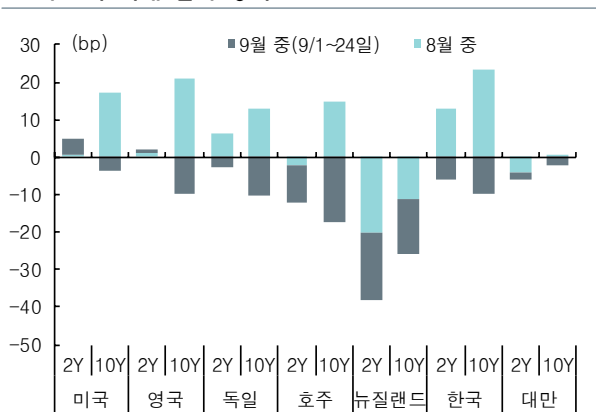
■ 뉴질랜드와 호주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증대되자 외국인은 국내 금리 하락에 베팅

-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아시아 국제 금리 하락 압력이 부각, 특히 뉴질랜드 단기금리(2년 이하)는 마이너스에 진입
 - 뉴질랜드 중앙은행(現 0.25%)은 추가 완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면서 대출 프로그램과 마이너스 기준금리, 해외자산 매입 등을 정책 대안으로 언급
 - 호주(0.25%)의 경우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으나 장기채 매입과 제로 금리 도입 등은 정책 수단으로 고려 중에 있다고 언급
-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시도로 한은이 당장 추가 인하 스탠스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는 위기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요인
- 특히 향후 글로벌 차원의 코로나 재확산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기가 다시 급락할 경우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risk 시나리오)
- 한편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금리 하락에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차원의 채권 강세 환경 하 외국인 주도의 강세장이 지속될 전망

■ 수급 부담 완화, 안전자산 선호 속 국내 금리는 낮아진 상하단 범위에서 등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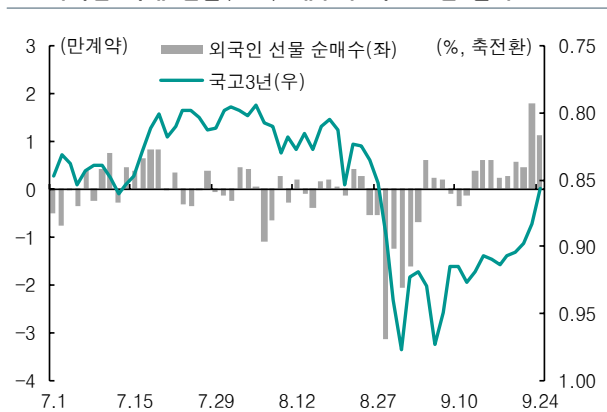
- 유럽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 확대, 백신 상용화 시기에 대한 기대 이연 조정과 美 경기 부양책 지연 등 금리 하락 압력이 보다 우세한 상황
 - 국내 수급 측면에서도 공급 부담 완화, 보험사 10년물 매수 등이 금리 하락 요인
- 다만 국내 금리가 8월 중의 신저점을 하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국고3년 금리는 0.8%~0.9% 레인지에서 등락할 가능성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80%~0.93%, 1.35%~1.60% 범위로 전망 

■ 주요국 국채 금리 등락



자료 : Bondweb, 연합인포맥스

■ 외국인 국채 선물(KTB) 매수와 국고 3년 금리



자료 : Bondweb

외환: 펀더멘털을 넘어서 일시적 원화 강세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루했던 1,180원대 흐름을 깨고 가파른 하락을 보이며 장중 1,150원대를 시현하기도 하였는데, 수출 경기 회복 혹은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달러 공급이 확대되는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위안화 블록 통화들과 키맛추기로 진행된 트레이딩 성격의 일시적 조정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美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원화에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 고려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상방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지루한 1,180원대 흐름을 깨고 급락 시현 후 일부 되돌림

- 타이트한 수급 환경 속에 1,180원대 흐름을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 및 주요 지지선 붕괴에 따른 포지션 정리 매물 출회로 약 30원 급락
- 장중 1,150원대 후반까지 급락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주요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 심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빠른 반등을 보이며 1,160원대 후반을 회복
- 한편 9월 수출(~20일)은 YoY 3.6%증가. 일평균(-9.6%)으로는 부진하지만 무역수지가 올해 3월 이후 최대인 45억달러를 기록, 9월 전체로는 올해 최대치 예상


■ 코로나 재확산 우려 및 美정치적 불확실성 부각되며 달러화 반등

- 달러화는 美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美증시 조정에 따른 리스크 오프 심리 고조, 유로화 하락으로 달러인덱스 기준 2개월래 최고치(94.4pt)로 반등
-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 코로나 확산세 심화로 일부 국가들의 재봉쇄 우려가 제기되고, ECB가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로당 1.16달러대로 반락
- 엔/달러 환율은 스가 장관의 신임 총리 당선으로 정책 연속성 확보 평가에도 불구하고, BOJ 정책여력에 대한 의구심과 위험회피심리로 장중 달러당 104엔을 하회
- 위안/달러 환율은 실물지표 개선, 2Q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채권 중심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통화 완화 속도 조절 시사 등으로 16개월래 최저치로 하락
 - 中 8월 실물지표(YoY): 산업생산+5.6%, 소매판매+0.5%, 고정자산투자(YTD)-0.3%
 - 중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 및 상대적 고금리 매력을 바탕으로 21개월 연속 순매수 (8월 외국인 보유량 2.5억 위안, YoY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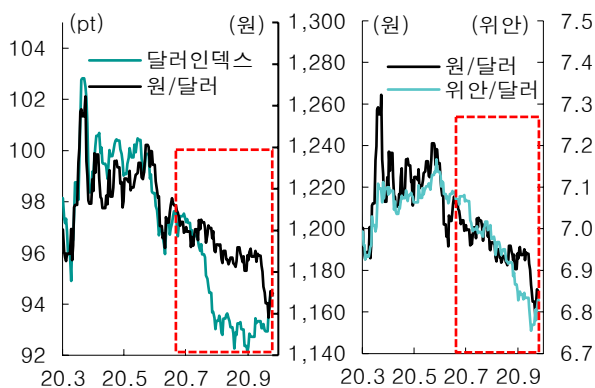
■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은 펀더멘털보다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키맞추기 조정

- 타이트한 수급 환경 속에 1,180원에서 움직임이 제한되었으나, 가파른 위안화 강세 및 9월 무역수지 확대로 1,180원 하향 돌파 후 역외 플레이어들의 거래와 롱스탑이 가세되며 120주 이평선(1,165원) 등 주요 지지선을 일시에 하회
-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은 국내 경기 회복 등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상대통화(달러, 위안)가치 변화를 제한적으로 반영하였던 원화의 키맞추기 성격 조정으로 판단
 - 달러화가 100을 하회한 7.1일부터 9.14일까지 달러화는 4.3% 약세, 위안화는 3.7% 강세. 반면 원화는 1.5%강세에 그치며 이격이 발생, 급락 후 상당 부분 해소
-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3가지 이유(①美정치적 불확실성, ②유럽을 비롯한 코로나 확산세 심화, ③위안화 추가 강세 제한)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① Ginsberg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관 후임 임명 이슈가 부각되며 양당 갈등이 격화. 이에 따라 대선 전 추가부양책 통과가능성이 낮아지며 소비절벽 우려 심화
 - ② 유럽을 비롯 북반구 동절기 도래에 따른 코로나 상황 악화 가능성 존재. 경제 재봉쇄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실망으로 위험회피 심리 자극
 - ③ 23일부터 인민은행은 고시 환율 발표 시 시장기대보다 위안화 약세 방향으로 역주기 요소를 조정하며 위안화 추가 강세는 제한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

■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170원 중심 등락 예상되나 장기 하락 전망 기조 유효

- 최근 원화 강세는 펀더멘털 대비 오버슈팅으로 판단. 연말까지는 1,170원을 중심으로 美대선 및 추가부양책 통과 여부에 따라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장기적인 약달러 기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위안화 강세기조는 유효. 내년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 하향돌파 시도를 재개하며 점진적인 하락 전망
 - 단 중국 금융시장 개방기조 속 원화의 위안화 proxy성격은 다소 희석 가능성 

■ 원달러 환율과 달러인덱스, 위안/달러 환율 추이



주: 달러인덱스는 좌축, 위안/달러는 우축, 원/달러는 중앙축을 따름
자료 : Bloomberg

■ 3분기 이후 달러화, 위안화, 원화 가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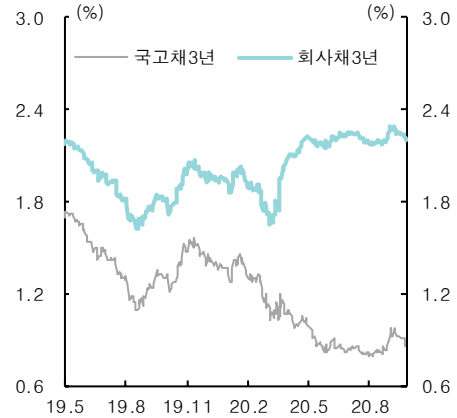
	달러화	위안/달러	원/달러
연초	96.4	6.964	1,150.0
7.1일	97.2	7.070	1,201.7
9.14일	93.1	6.811	1,183.2
변화율	-4.3%	+3.7%	+1.5%
9.21일	93.7	6.805	1,158.1
변화율	-3.6%	+3.7%	+3.6%
연초대비	-2.9%	+2.3%	+0.3%

주: 변화율은 7.1일 대비 각 통화가치 변화 기준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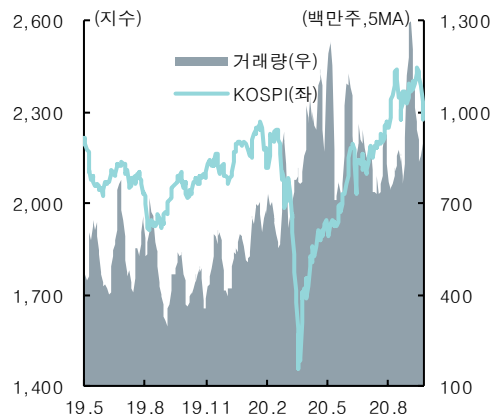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8월말	0.55	0.63	0.83	2.26	0.94	1.21
9월 18일	0.47	0.63	0.83	2.23	0.91	1.20
9월 21일	0.46	0.63	0.83	2.23	0.90	1.20
9월 22일	0.49	0.63	0.83	2.23	0.90	1.18
9월 23일	0.47	0.63	0.83	2.22	0.88	1.15
9월 24일	0.49	0.63	0.82	2.20	0.86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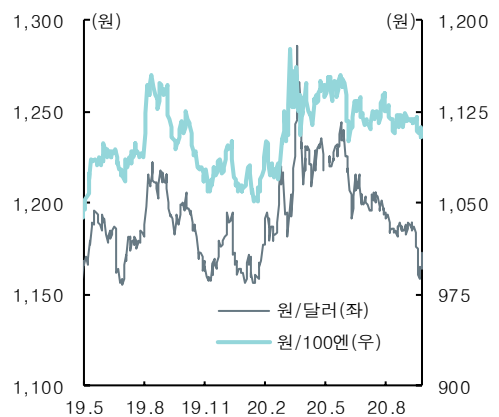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8월말	2,326.2	194,944	1,648	-16,362
9월 18일	2,412.4	139,652	757	1,453
9월 21일	2,389.4	142,151	1,042	-737
9월 22일	2,332.6	178,967	1,051	-171
9월 23일	2,333.2	135,629	735	-559
9월 24일	2,272.7	124,690	715	-1,915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8월말	1,187.8	1,121.1	173.4	1,417.7
9월 18일	1,160.3	1,109.1	171.4	1,373.4
9월 21일	1,158.0	1,106.4	170.2	1,362.9
9월 22일	1,165.0	1,110.2	171.9	1,364.0
9월 23일	1,164.4	1,104.5	171.0	1,357.6
9월 24일	1,172.7	1,112.4	171.7	1,3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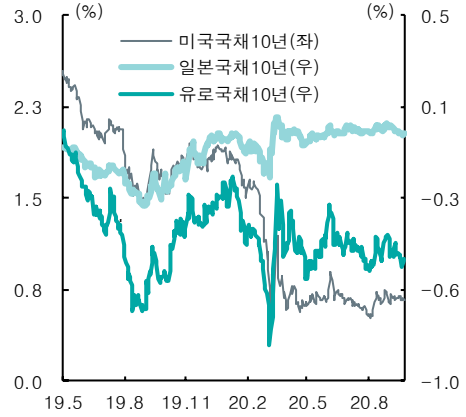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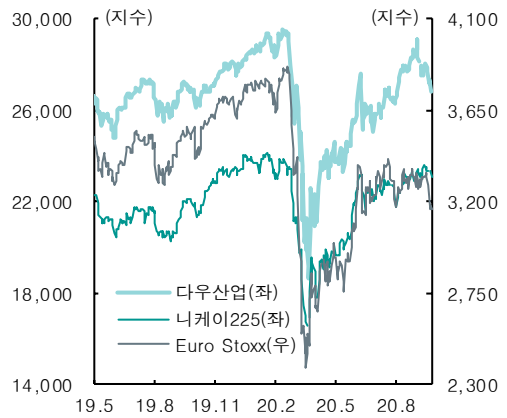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8월말	0.08	0.24	0.13	0.70	0.05	-0.40
9월 18일	0.09	0.23	0.14	0.69	0.02	-0.49
9월 21일	0.09	0.22	0.14	0.67	0.02	-0.53
9월 22일	0.09	0.22	0.14	0.67	0.02	-0.51
9월 23일	0.09	0.23	0.14	0.67	0.01	-0.51
9월 24일	0.09	0.23	0.13	0.67	0.01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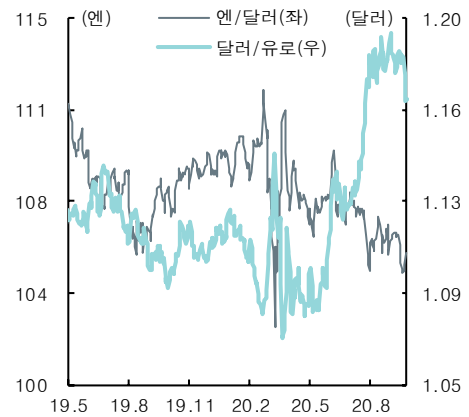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8월말	28,430.1	23,139.8	3,395.7	3,272.5
9월 18일	27,657.4	23,360.3	3,338.1	3,283.7
9월 21일	27,147.7	-	3,316.9	3,161.0
9월 22일	27,288.2	-	3,274.3	3,164.1
9월 23일	26,763.1	23,346.5	3,279.7	3,180.1
9월 24일	26,815.4	23,087.8	3,223.2	3,159.6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8월말	105.87	1.194	45.9	1,978.6
9월 18일	104.53	1.184	43.0	1,962.1
9월 21일	104.65	1.177	41.6	1,910.6
9월 22일	104.90	1.171	41.1	1,907.6
9월 23일	105.37	1.166	41.4	1,868.4
9월 24일	105.41	1.167	41.2	1,876.9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9월 26일 인쇄

2020년 9월 28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0호

0732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Tel 2002-2200 Fax 2002-2610